

쌀대책과 식량자급의 길

윤석원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사회의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무슨 말씀인가 하면 WTO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말하자면 겉으로만 추구하고 있는 시장 지향성, 자유무역 그리고 비교우위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사다먹으라는 것이 WTO체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만 내세우는 이념이지요.

그런데 최근의 우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론을 조금 눈여겨보면 우리는 WTO가 추구하는 겉으로 드러내는 껍데기 이념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시장지향으로 나갑니까?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나라, 농업문제를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심지어 WTO체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가들 중에서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은 수 조원의 소득보조를 하지않습니까! 그 다음 2002년 금년에 새로 생긴 「Farm Bill농업법」에서는 앞으로 5년, 6년간의 50조 가까운 각종 명목의 소득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EU는 어떻습니까?

예산의 거의 80%가까운 돈이 각 종 명목의 소득보조입니다. 이젠 뭐 말씀인가 하면 수출하는 나라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책이 소득보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만 이상하게 외

면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는 식량문제, 오늘 긍정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식량문제를 접근하느냐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식량문제가 위기인가?

첫번째로 농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전 시작된다고 봅니다. 개방과 시장기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과소평가가 나타납니다.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수조절 기능, 경관유지 기능, 전통보존 기능 말하자면 다양한 우리 농업, 농촌의 특수성을 시장가치로 평가 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나라에서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제국의 소득보존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UR협상 때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보존을 하려면 예컨대, AMS범위 내에서 하려면, 수매제도를 줄이고 또 줄여 가야 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AMS범위 외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 특수한 기능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소득보존 직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 지원액의 감소입니다.

네 번째 농촌 사회 복지 정책의 부재입니다. 논 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여나간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의 60세 이상의 어른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쌀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쌀 농사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줄지않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쌀 밖에 할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외 통상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입니다. 통상을 담당하는 곳이 지금 외통부의 통상 교섭본부가 창구가 돼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농업이나 농촌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런 확고한 게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니까 핸드폰이 마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도 2004년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쑥 들어 갔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자동 관세화론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섯 번째는 쌀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수확기 쌀 대책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재고량의 수확기 전 긴급처분, 이 문제는 계속 최근에도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에 뭐 좀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이번 가을 수확기 때 생산 농민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대농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가 있는 농민들께서는 가능하면 수확기에 쌀을 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말이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1ha미만 영세농들이 한 70~80%되기 때문에, 가을의 수입 때문에 쌀을 어떻게 내놔 봐야되지만 조금 여력이 있다든지, 규모가 크신 생산자께서는 수확기 때 쌀을 내다 팔지

말고 가능한 한 붙잡아 둬으로서 가을에 값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봅니다.

한 농가 당 평균 288kg, 그러니까 80kg해서 평균 3.6가마, 평균으로 해서 4가마 정도만 전 농가가, 즉 100만 농가가 붙잡아 둔다면 그것만 해도 400만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출하량을 좀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이것을 했으면 어떨까해요. 그 다음은 쌀 소비 촉진도 좀 하구요. 이런 대책들이 금년 가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안을 내 놓고 있고 농특위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고 쌀 정책을 입안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식량 정책을 입안하느냐 하는 것이 나는 제일 크다고 봐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언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농업 직불제를 개선을 하자, 액수도 좀 늘려보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소득보존 직불제를 도입 하자, 공공비축제를 도입 하자, 유통주체인 RPC와 생산자가 계약자를 확대하자, 대외 원조법을 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양곡이 남아 돌 때는 해외로 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만들어 보자. 또 경영이양 직불제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중요시하고 또 소비자를 인식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좋은 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쌀과 관련해서 수확 후부터 건조 저장까지만 이것을 정부가 SOC차원에서 돈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건조시설 같은 것은 농협 RPC를 중심으로

로 해서 들어 갑니다마는 그것은 수익성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따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구조 차원에서 유통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빨리 되어 생산자들은 가을에 좀 저장도 하고 건조도 좀 스스로 하고 이렇게 해서 수확기 때 출하 될 수 있는 물량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완작물을 적

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콩만 우리가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밀의 경우에는 벌써 끝나고 난 다음에 노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문제도 오늘 다음 주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식량 자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㉞

도·농 녹색교류 참여 희망 농가 모집

농·소·정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농 교류사업과 농업·농촌 알리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농 녹색교류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자격
 - 농업·농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선도농가로서 고품질·친환경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 도시민들이 즐겨 쉬어 갈 전통 문화·농촌(자연)체험공간을 확보한 개별 농가, 마을 혹은 지자체 등(전국의 관광농원이나 팜스테이 농가 포함)
- 모집기간 : 연중
- 연락처
본회 연수·지도부 (02)794-7270

밀려오는 중국 산동성 농산물의 실상과 허상

- 중국 산동성 과수·
과채원에 연수시찰단 참가안내 -

- ◆ 목적 : 오는 10월 17일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개최하는 제4회 국제과수·과채박람회를 관람하고 현지 농장을 견학함으로써 중국 농업을 심층확인하고 분석하며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함에 있음
- ◆ 기간
2002년 10월 17일(목)~10월 22일(화) <5박6일>
- ◆ 비용 : 60만원 (여건 및 비자발급비 별도)
- ◆ 대상 :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30명 선
착순 접수
- ◆ 신청방법 : 전화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 주시면 신청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 기타 : 본회 연수·지도부(전화: 02-794-7270)로 문의 바람